

요약 번역문

동아시아연구원-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소프트파워 회의

2009년 2월 미국 상원에서 데니스 블레이어 국가정보국 국장은, “미국의 최우선 단기 안보과제는 세계경제위기와 경제위기가 가져온 지정학적 영향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세계경제위기는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미국의 장기적 목표를 이루는 것을 어렵게 할 지도 모른다...이미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 구조를 이끄는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고...중국은 (국제적)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라고 발언하였다. 블레이어 국장의 우려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 다시 말해 미국이 원하는 바를 다른 국가들도 원하게끔 만드는 미국 정책의 매력에 대한 염려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연구원과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는 이번 금융위기가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소프트 파워와 국가 영향력에 미칠 함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이틀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주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위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후 안보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가?
2. “미국모델”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실을 입었는가? 그리고 금융위기가 거버넌스와 국제질서에 대한 서구적 가치에 도전하는 사상들에 힘을 실어주었는가?
3. 금융 위기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상대적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워크숍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11개의 분석 포인트를 제시한다.

- 지역 질서에 있어서, 2008년 세계금융 위기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의 프리즘을 통해 이해되고 있다.
- 경제적으로 중국은 금융 위기 이후 더욱 강해진 반면, 일본은 약해졌다.
- 다자주의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G20이나 지역 차원의 이니셔티브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가 지니는 소프트파워 혹은 매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금융위기는 중국이 지역적으로 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 그러나 한국과 일본 역시 계속해서 주요 행위자로 머물 것이다. 다자주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두 국가는 범아시아 다자주의 이니셔티브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 미국과 중국식 경제 모델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식 경제모델이 지닌 강점이 중국식 대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주장 역시 정확하지 않다.
- 중국정부는 국내적으로 미국식 모델을 비판하기 위해 금융위기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
- 미국 소프트 파워에 가해진 손상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의 역량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지 미국의 세계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 중국을 이해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과 같은 것을 원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국가들은 경제적 분야에서 중국에게 바라는 것과 정치외교 분야에서 중국에게 바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중국이 다른 국가에게 경제적으로 원하는 바와 정치외교적으로 원하는 바가 명확히 나누어져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 중국은 국제적인 비판을 정치적 대화의 일상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 미국의 동맹국들은 계속해서 미국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